

# 노인의 이미지와 노인차별경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between the Elderly's Image and Ageism Experience

신학진\* · 전상남

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Shin, Hak Gene · Jeon, Sang Nam**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Jeonju Kijeon Colleg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elderly's image or appearance to ageism. In this study, image included factors such as image management, external image and self and other's acceptance.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effect of image to ageism, we purposely collected 315 samples from 4 senior welfare centers in Jeonju and exploited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297 cases excluding some cases with missing values.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we found that oneself and others' acceptance of the elderly's external image decreases the experience of ageism. Second, the behavior for image management resulted in oneself and others' acceptance of the image. Third, the behavior for image management positively influenced the external image. Fourth, the elderly's external image caused positive effects on oneself and others' acceptance of the image. Fifth, behavior for image management showed decreasing effects of the ageism experience.

**Keywords** : image, ageism, image management, lookism, discrimination

### I. 서론

Butler(1969)는 노인차별(Ageism)을 노인에 대한 편견(Prejudice)과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정의했다. 서구사회에서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에 이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차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등에 비해서 노인차별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관심도 적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1967년에 연령차별 및 고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에 연령차별금지법 즉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효함으로써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 상의 문제로 한정하였으며 경제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차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인복지의 문제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차별 중에는 외모차별이 있다. Jensen(1991)의 외모차별(Lookism)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외모는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믿음으로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기준설정, 외모에 대한 고

---

\* Corresponding author: Shin, Hak Gene

Tel: 063-231-5732, Fax: 063-231-5733

E-mail: shin@kijeon.ac.kr

정관념을 토대로 하는 억압이나 표준의 적용 등으로 구성 된다고 했다. Safire(2000)의 연구에서 외모차별은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Browne과 Meyer (2003)는 외모차별이란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개념으로 기준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적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억압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신체적 노화의 특성으로 노인의 이미지는 특유의 형태를 띠게 되고 노인차별은 노인의 이미지 또는 외모에 편승하여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연성은 Jensen (1991)이나 Browne과 Meyer(2003)의 정의에 따른 추정으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노인에게도 부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차별과 노인의 이미지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Butler(1995)는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비생산성, 분리 또는 이탈(Disengagement), 비탄력성, 노쇠 또는 노망(Senility), 성기능상실(Sexlessness)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차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밝히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노인차별은 차별 자체로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노인차별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대응으로 사회전체가 노인차별에 대한 교육 및 경각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노인의 무엇이 차별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문제로 첫째, 노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셋째,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차별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차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등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에서는 이미지와 외모차별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노인차별에 관한 관련된 이론을 논의한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대상자, 실험설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등을 기술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분석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구조방정식(SEM)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발견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차별

Ageism은 노인차별, 노인차별주의, 노인배타주의, 나이(차별)주의 또는 연령(차별)주의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박종우, 1999; 김욱, 2002, 2003; 남석인, 2008). 본 논문은 노인차별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차별은 노인에 대한 편견(Prejudice)을 가지고 있거나 차별(Discrimination)하는 가해자(Ageist)와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정서, 경제, 법률, 문화, 교육, 고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손해를 입는 피해자(Victim)의 차원에서 사용되어 왔다. 한편 Palmore(1999)는 노인차별의 부정적 의미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노인요양보험 같은 정책을 언급하며 노인차별의 개념에 우호적 차별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지적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노인차별은 Butler(1969)와 김욱(2003)의 정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 의미의 편견과 차별”을 사용한다. 노인차별은 Butler(1969)에 의해서 정의되었지만 이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Tuckman와 Lorge(1953)는 사람들이 노인이나 나이든 노동자에 대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했다.

우리나라는 약 10년 전부터 노인차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연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주요연구로 김욱(2003)은 국내의 노인차별실태에 관한 탐색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원영희(2005)는 노인차별로 인한 영향에 관해서 연구했고, 남석인(2008)도 차별경험이 노인인식과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국외의 최근 연구로 Rupp외(2006)는 노인에 대한 편견의 선행요인으로 노인차별을 보고했다. Gordon과 Arvey(2004) 그리고 Kite와 Stockdale(2004)은 일반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음을 보고했다. ILC(2006)은 노인차별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개인적 노인차별(Personal ageism)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기초로 하는 개인의 태도, 생각, 행위, 믿음 등을 의미한다. 둘째, 제도적 노인차별(Institutional ageism)은 나이를 기초로 하여 노인이나 노인집단의 권리에 반하는 규정, 목적, 실천 등을 의미한다. 셋째, 의도적 노인차별(Intentional ageism)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유지되고, 구현되며, 적용되는 태도, 규정, 실천 등이다. 넷째, 비의도적 노인차별(Unintentional ageism)은 편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용

되는 것이다. 한편 Dennis와 Thomas(2007)는 직장에서의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 내의 노인차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 조기은퇴와 생산인력의 부족 그리고 노인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 등 때문에 이 주제가 더욱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aithwhite(2002)는 다른 이즘(-ism)처럼 노인차별은 이 사회에서 소멸시키기는 어렵지만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된 교육적, 법적 규제에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유사한 지적으로 Butler(2005)는 노화와 노인의 잠재력과 생산성 등에 관한 지식을 공유 또는 교육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선입견을 우리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Breda와 Schoenmackers(2006)는 차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면 Palmore (1999)의 우호적 차별과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다. 즉 사회는 노인집단을 다른 구성원과 구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노령연금이나 공공요금의 할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성격임을 지적했다.

Victor(2007)는 노인차별은 사회구조와 개인의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고, 노인차별의 연구 방향은 사회구조의 특성과 그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다. McGuire외(2008)는 노인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입안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 먼저 노인차별의 정도나 범위를 측정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차별의 정도를 Palmore(1999)의 노인차별경험 척도로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노인의 이미지와 노인차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이미지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는 “시간,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오감을 통해 경험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상의 총합”이다(네이버사전, 2009). Kotler(1988)는 이미지를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지니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정의했다. 임숙자와 최성주(2000)는 사람의 이미지를 외적이미지와 내적이미지로 분류하고 외적이미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되고, 외적이미지를 외모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 외적이미지는 언어, 자세, 태도,

표정, 외모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써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 정리했다. 오미영(2002)은 이미지구성요소를 인상, 카리스마, 능력, 전략, 목소리, 외모, 매력의 7가지로 구분했다. 한국여성민우회(2009)는 성형수술의 의향이 있는 여고생의 83.1%와 여대생의 92.5%가 성형수술을 하려는 이유로 자신감 회복을 지적했다고 보고하여 외적이미지는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현주(2008)는 이미지가 실체가 아닌 인간 마음 속에 형성된 직관과 감성의 세계를 의미하며, 사람에 대한 상(象)이나 모습, 기호 등으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태도, 인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이미지의 형성과정으로서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의 결과물로서 외적이미지 그리고 외적이미지의 사회심리적 평가로서 자타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현주(2008)는 이미지 형성을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정해 놓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동으로 개인의 외모, 태도, 표정, 행동, 말씨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의 영향으로 자기제시전략과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Rudd와 Lennon(2000)은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준거집단 내의 외모의 기준을 관찰하고, 적절한 다이어트, 화장품 사용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이며, 매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자기 존중감 향상과 사회적 이점을 얻는다고 보고했다. 임숙자와 최성주(2000)는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됨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한다는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이현주(2008)는 외모관리행동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상황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형성된 이미지를 내면화 시켜감으로써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현주(2008)는 내적이미지의 행동화로서 언어적 표현인 자기제시(self presentation)를 지적했다. 외적이미지의 행동화로서 외모관리행동을 주장했다. Kasier(1996)는 이미지 형성의 요인 중 신체부분의 측정을 위해서 피부, 화장, 미용 등의 요인으로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했다.

Kasier(1996)는 외적이미지란 외모를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

적인 제스처, 표정, 자세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체와 의복은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혔다. Cash와 Pruzinsky(1990)는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연관된 느낌,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이미지에는 정서적, 평가적, 행위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현주(2008)는 외적이미지의 측정 수단인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느낌, 태도, 평가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 또는 문화적 가치에 의한 신체상의 비교와 평가로 정의했다. 외적이미지의 측정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Cash와 Pruzinsky(1990)는 신체이미지의 측정도구인 MBSRQ(Multi-Dimensional Body - 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개발했다.

본 연구는 차경호 등(2006)의 자존감 측정척도에서 외모에 따른 자타인정 척도와 과 Cash와 Pruzinsky(1990)의 외모평가 즉 외적이미지의 측정 그리고 이현주(2008)의 외적이미지 측정척도를 노인에게 적합하며 노인차별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Kasier(1996)의 외모관리행동과 의복부분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패션 감각의 개념과 이의 하위문항으로 센스, 색감, 세련미 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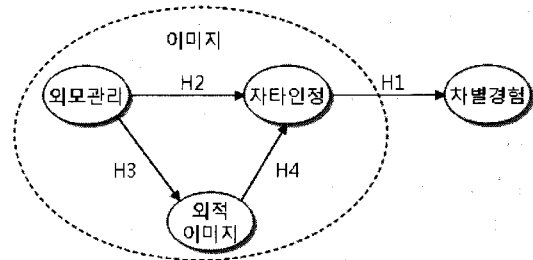
### Ⅲ. 연구설계

#### 1. 가설 및 측정

연구는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차별 경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이미지는 그림 1의 연구모형처럼 외모관리, 외적이미지, 자타인정의 하위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은 하위요인들의 역학관계와 이들이 노인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 H1 : 노인의 자신과 타인의 인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의 경험은 낮을 것이다.
- H2 :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노인은 자신 및 타인으로부터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인정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할 것이다.
- H3 :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의 외적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 노인의 외적이미지는 자신 및 타인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은 4개의 가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도식화한 모습이다. 연구에서는 외적이미지나 자타인정요인의 매개변수로서 기능은 가설로 제시하지 않았고 분석결과 단계에서 논의에 포함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요인의 측정을 위해서 노인의 이미지는 차경호(2006)와 이현주(2008)가 사용한 기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하위요인으로 자타인정감, 외적이미지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을 수정하여 구성했다. 차별경험은 김옥(2003), 원영희(2005), 남석인(2008), Palmore(2001), McGuire(2008)가 사용한 노인차별경험 측정척도를 부분 수정하여 3개의 하위요인인 피해경험, 무시당한 경험, 소외당한 경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설계했다.

각 요인의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외모관리를 묻는 4개의 문항, 외적이미지를 묻는 문항 6개의 문항, 자신과 타인의 인정감을 묻는 문항을 5개, 차별경험에 관한 문항을 20개로 모두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배정하였다. 또한 인구사회적 질문으로 성별, 나이, 학력, 경제수준으로 4문항을 질문하였으며, 전체문항 수는 39문항으로 구성했다.

#### 2. 표본 및 조사

표본은 2009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노인복지관 중에서 전주시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총 6개의 기관 중에서 설문을 허락한 4개 기관의 이용자 중에서 응답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은 조사자가 추출된 응답자에게 설문의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을 구두로 들은 뒤에 설문지에 표시하는 방식을 취했고, 응답자 자신이 직접 읽고 표시하

기 원하는 경우는 이를 허락했다. 회수된 설문지 315케이스 중에 결측값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97케이스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 3. 분석방법

요인분석을 통해서 외모관리, 외적이미지, 자타인정 그리고 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된 하위요인별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사용했다. 즉 하위요인별 문항들의 산술평균을 구하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지표(index)화 했다.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실시하였다. 도구로는 코딩단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EXCEL, 통계분석에서는 SPSS 버전 15.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수(Indicator)에 의해서 측정된 하위요인(Construct)들의 측정은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도출했다.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	184	62.0
	녀	113	38.0
	계	297	100.0
연령	60-69세	96	32.3
	70-79세	157	52.9
	80세이상	44	14.8
	계	297	100.0
학력	중졸이하	93	31.3
	중졸	48	16.2
	고졸	83	27.9
	전문대졸	14	4.7
	대졸이상	59	19.9
	계	297	100.0
주관적경제 수준	하층	41	13.8
	중하층	54	18.2
	중층	167	56.2
	중상층	30	10.1
	상층	5	1.7
	계	297	10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2%(184명)이고 여성이 38%(113명)이었다. 나이는 60대가 32%(96명), 70대가 53%(157명), 80대가 15%(44명)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31%(93명), 중졸이 16%(48명), 고졸이 28%(83명), 전문대졸이 5%(14명), 대졸이상인 20%(59명)로 고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경제수준에 대한 생각은 하층이 14%(41명), 중하층이 18%(54명), 중층이 56%(167명), 중상층이 10%(30명), 상층이 2%(5명)로 과반수가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2.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요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했으며 회전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값이 0.852로 1에 가깝고, 변인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lett의 구형성검정 통계값이 2252.777( $df = 153, p = .000$ )로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므로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5회전을 통해서 4가지 주요인으로 수렴되었다. 주요인은 각각 외적이미지, 자타인정, 외모관리, 차별경험으로 수렴되었다. 추출된 4개의 주요인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61.972%(누적분산 값)를 설명해 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주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한 주요인별 내적일관성신뢰도 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이미지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신뢰도 즉 신뢰계수는 0.867, 자타인정감의 신뢰계수는 0.780, 외모관리의 신뢰계수는 0.729 각각 나타났다. 차별경험의 경우 20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으로 피해경험(Cronbach  $\alpha = 0.833, n = 8$ ), 무시경험(Cronbach  $\alpha = 0.863, n = 7$ ), 소외경험(Cronbach  $\alpha = 0.838, n = 5$ )으로 구성된 3개 하위요인을 추출한 뒤 각 요인별로 문항 값에 대해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적용했다. 항목묶기는 다변량 잠재변수를 분석하는 기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집계수준의 측정지표를 의미하며 그 타당성과 유용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Todd 외, 2002; 이유재 외, 2004). 차별경험 전체문항의 신뢰계수는 0.922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의 잠재(하위)요인들을 나타내는 세지표의 신뢰계수는 0.825로 각각 나타났다.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주요인들에 대해 AMOS

〈표 2〉 연구모형 요인타당도 - 탐색요인분석

주요인	문항	외적 이미지	자타 인정	외모 관리	차별 경험	공통분
외적 이미지	의복세련	0.846	0.140	0.173	0.017	0.766
	색감조화	0.819	0.081	0.291	-0.008	0.762
	의복센스	0.759	0.048	0.323	-0.092	0.691
	옷맵시	0.736	0.197	0.047	0.012	0.584
	외모칭찬	0.669	0.314	0.089	-0.037	0.555
	짧어보임	0.646	0.228	-0.146	-0.128	0.507
자타 인정	주변칭찬	0.207	0.742	0.190	-0.003	0.629
	타인인정	0.132	0.713	0.022	-0.195	0.565
	자기만족	0.175	0.701	-0.074	-0.077	0.533
	유용인물	0.113	0.663	0.323	-0.025	0.558
	주변유능	0.172	0.635	0.196	-0.083	0.479
외모 관리	헤어용품사용	0.054	0.091	0.813	0.053	0.676
	머리관리	0.009	0.216	0.709	-0.084	0.556
	피부관리	0.269	0.051	0.708	-0.073	0.582
	청결화장	0.297	0.136	0.537	-0.242	0.454
차별 경험	피해경험	-0.010	-0.123	-0.066	0.891	0.813
	무시경험	-0.077	-0.121	-0.010	0.874	0.784
	소외경험	-0.037	-0.056	-0.129	0.800	0.662
고유값	3.676	2.720	2.409	2.350		
설명분산	20.422	15.113	13.384	13.054		
누적분석	20.422	35.535	48.919	61.972		
문항수	6	5	4	3	18	

\* 5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됨

7.0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은 주요인, 주요인의 측정항목, 측정항목 별 표준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의 임계치(C.R.), 평균분산 추출값(AVE), 요인부하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일반적으로 측정항목의 표준화요인부하량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 $p < .01$ )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표준화요인부하량은 0.7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표준화요인부하량은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인부하량의 C.R.값은 모든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값은 주성분을 구성하는 개별 측정항목의 표준화요인부하량의 제곱의 산술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값은 크기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적이미지와 차별경험은 집중타당성이 높지만 자타인정이나 외모관리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집중타당성을 보이고 있다.

확인요인분석을 위한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결적합도지수로 판단한다. 절대적합도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지수인  $\chi^2$ 과 자유도(d.f.)는 영가설인

〈표 3〉 확인요인분석

주요인	문항	표준요인 부하량	C.R.	AVE
외적이미지	의복세련*	0.901	11.739	0.520
	색감조화	0.858	11.501	
	의복센스*	0.763	10.556	
	옷맵시	0.626	-	
	외모칭찬	0.589	11.652	
	짧어보임	0.502	7.698	
자타인정	주변칭찬	0.738	-	0.420
	타인인정	0.630	9.442	
	자기만족	0.572	8.647	
	유용인물	0.659	9.813	
	주변유능	0.631	9.450	
외모관리	헤어사용*	0.651	7.825	0.408
	머리관리*	0.620	7.580	
	피부관리	0.693	8.044	
	청결화장	0.586	-	
차별경험	피해경험	0.889	-	0.646
	무시경험	0.821	14.019	
	소외경험	0.688	12.171	

p &lt; .01

\* 의복세련은 타인의 평가이고, 의복센스는 주관적 평가를 질문했다. 헤어사용은 헤어용품 사용여부에 한정했고, 머리관리는 이발, 미용, 염색, 파마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입력공분산행렬과 추정공분산행렬은 같다”를 검증하는 값이다. <표 4>에 기술된 적합도에 관한 확인요인분석결과는  $\chi^2 = 224.756$  ( $d.f. = 126, p = 0.001$ )로  $p$ -value가 0.01보다 작으면서 RMSEA는 0.051로 기준인 0.05보다 작아 바람직하여 절대적합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분적합도지수는 연구모형이 모든 측정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NFI(Normed Fit Index)는 0.903으로 판단기준인 0.900보다 크며, TLI(Tucker-Lewis Index) 역시 0.944로 기준치인 0.900을 상회하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54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간결적합도지수는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비교가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요인의 탐색과 확인, 확인된 요인들의 적합성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함을 보이고 있다.

〈표 4〉 확인요인분석 모형적합도

$\chi^2$	d.f.	p	모형적합도			
			NFI	TLI	CFI	RMSEA
224.756	126	0.001	0.903	0.944	0.954	0.051

3. 인과분석

외모관리, 외적이미지, 자신과 타인의 인정 그리고 차별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과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구조방정식의 표준경로계수와 유의성은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모관리가 외적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0.490이고 C.R.은 5.534이며 유의성은 0.01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모관리가 자타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0.340이고 C.R.은 3.810이며 유의성은 0.01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적이미지가 자타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0.318이고 C.R.은 3.959이며 유의성은 0.01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타인정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0.286이고 C.R.은 -4.084이며 유의성은 0.01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타인정이 긍정적인 요인인 반면에서 차별경험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표준경로계수가 음수로 나왔다고 판단되며 이는 적절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6>에 기술된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는  $\chi^2 = 227.622(df=128, p=0.000)$ 로 p-value가 0.001보다 작으면서 RMSEA는 0.051로 기준인 0.08보다 작아 바람직하여 절대적합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분적합도지수로 NFI는 0.901로 판단기준인 0.900보다 크며, TLI 역시 0.945로 기준치인 0.900을 상회하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증분적합지수인 CFI는 0.954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해석된다.

<표 5> 연구모형의 표준경로계수 및 유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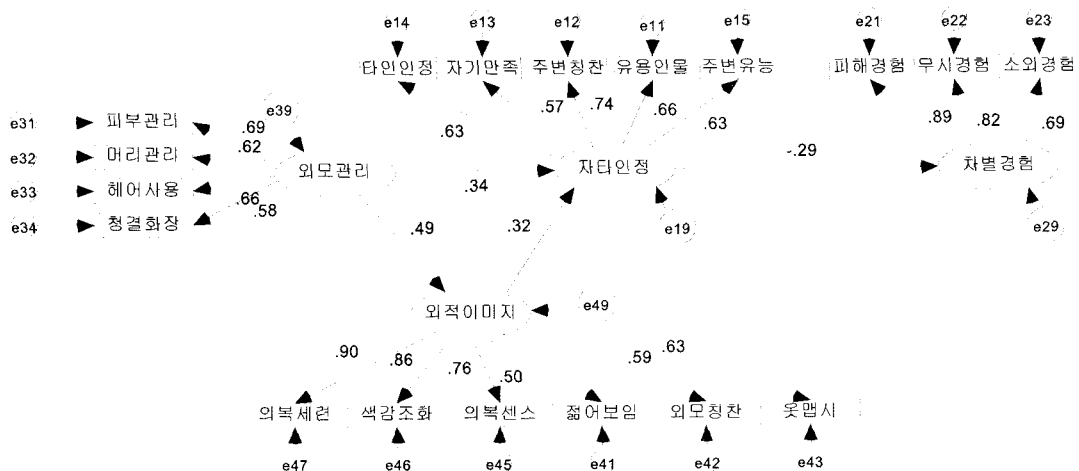
경로	경로계수	표준경로계수	C.R.
외모관리 → 외적이미지	0.546	0.490	5.534
외모관리 → 자타인정	0.412	0.340	3.810
외적이미지 → 자타인정	0.345	0.318	3.959
자타인정 → 차별경험	-0.245	-0.286	-4.084

p<.01

<표 6> 인과분석 모형적합도

모형적합도						
$\chi^2$	df	p	NFI	TLI	CFI	RMSEA
227.622	128	0.000	0.901	0.945	0.954	0.051

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은 한 요인에서 다른 요인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영향과 다른 요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영향으로 분류된다. 표준총영향(Standardized total effects)은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의 합으로 산출된다. <표 7>은 요인의 표준총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외모관리가 자타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영향이 0.340이고 (<표 5>참조), 간접영향은 외모관리가 외적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인 0.490과 외적이미지가 자타인정에 미치는 영향인 0.318을 곱한 값으로 0.156이다. 따라서 외모관리가 자타인정에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미치는 총영향은  $0.340 + (0.490 * 0.318) = 0.496$  (<표 7참조)이 된다. 따라서 외모관리가 외적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자타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외모관리가 차별경험에 미치는 총영향은 -0.142로 이는 자타인정을 경유한 직접영향( $0.34 * -0.286 = -0.097$ )과 외적이미지와 자타인정을 경유한 간접영향( $0.49 * 0.318 * -0.286 = -0.045$ )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경로계수

〈표 7〉 요인간의 표준총영향

	외모관리	외적이미지	자타인정
외적이미지	0.490		
자타인정	0.496	0.318	
차별경험	-0.142	-0.091	-0.286

을 합산한 값이다. 또한 외적이미지가 자타인정을 경유하여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0.318 \times -0.286 = -0.091$ 로 산출된다.

#### 4. 가설검증

<표 5>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표준경로계수는 유의성이 있으며 적절하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가설의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H1 : 노인의 자신과 타인의 인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의 경험은 낮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의 표준경로계수는  $-0.286$  ( $C.R. = -4.084,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경로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타인정이 클수록 차별경험은 작아진다고 해석된다.

가설 H2 :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노인은 자신 및 타인으로부터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인정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의 표준경로계수는  $0.340$  ( $C.R. = 3.810,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이 노인 자신과 타인의 인정을 느끼는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H3 :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의 외적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표준경로계수는  $0.490$  ( $C.R. = 5.534,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노인의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의 외적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H4 : 노인의 외적이미지는 자신 및 타인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표준경로계수는  $0.318$  ( $C.R. = 3.959,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노인의 외적이미지가 자타인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노인차별에 관한 논의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등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차별 중에는 외모차별이 있으며 외모차별은 우리나라의 성형문화나 피부관리 그리고 패션산업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해서 외모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미지가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첫째, 노인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인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의 경험은 적게 나타났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의 이미지에 대한 자타인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의 외적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외적이미지가 자신과 타인의 인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모관리행동은 노인차별의 경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utler(1995)가 제시한 노인차별의 원인인 비생산성, 분리 또는 이탈(Disengagement), 비탄력성, 노쇠 또는 노망(Senility), 성기능 상실(Sexlessness)에 새로운 원인으로 노인의 외모(Image)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와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고용, 법률, 패션, 문화,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모차별(Lookism)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노인차별(Ageism)이 사회전반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법률, 의료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인의 이미지와 노인차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연구는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의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차별과 노인차별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복차별이 여성노인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기는 것이나 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 중복되어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지가 노인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외모차별이 노인차별과 중복되어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이미지에서 외모관리행위와 외적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노인의 외모관리행위와 외적이미지가 자신 및 타인의 인정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즉 외모관리행위는 외적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외적이미지는 자타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타인정은 노인차별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노인차별의 대응전략으로서 노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교육의 내용에는 헤어용품의 사용법, 머리관리법, 피부관리법, 청결 및 화장법 등을 포함해



야 한다. 또한 세련된 의복의 선택 및 코디, 색의 조화, 의복에 센스, 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김옥(2003)은 노인차별경험에 유의미한 변수로 주관적 나이, 주관적 생활, 주관적 건강 등을 열거하고 주관적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차별 경험수준이 높아지며, 주관적 나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모델의 설명력이 7%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변인으로 노인의 이미지의 포함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Butler(1995)의 연구를 보완하여 노인차별의 원인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공경이 우리사회의 덕목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노인차별 경험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급격하게 경제논리가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가운데 고용분야에서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나이와 관련된 유행어가 우리사회의 나이에 대한 차별정도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차별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대응전략으로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적 대응도 있지만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대응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노인의 이미지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의 포함이 중요한 실천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관련 산업에서는 노인의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관한 연구와 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관계자는 노인의 이미지 관리제품 시장의 잠재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품 개발에 투자가 요망된다. 이 분야는 노령사회의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차별완화,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노인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매체의 계몽운동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노인차별은 국가와 사회의 손실이며 궁극에는 국민 개개인의 손실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법률적, 정책적 대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인차별의 경우 일반인은 아직 인식조차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노인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넷째, 노인차별퇴치전략은 거시적 퇴치전략과 미시적 퇴치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법률이나 정책 차원에서 노인차별 요소를 재검토하고 사회차원에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지 즉 의도적 노인차별(Intentional ageism)이나 비의도적 노인차별(Unintentional ageism)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노인 개개인의 자기방어 전략 차원에서 노인차별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인의 무엇이 차별을 유발하는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과 제안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대상인 노인복지관에 나오는 노인은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중간층을 형성하며 교육 수준 역시 높은 편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사회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농촌지역의 노인이나 건강이 나빠서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하위층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추가검증이 필요하다. 그밖에 이미지의 구성에는 외적이미지 외에 내적이미지가 있고 본 연구의 보완으로 내적이미지가 노인의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도 연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차별의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규명을 통해서 노인차별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방어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Butler(1969)는 노인차별을 작은 개념으로 봤고, 본 논문도 Butler의 작은 개념을 수용했으나 Butler(2005)는 노인차별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견된다고 개념을 확대했다. 범사회적 노인차별 퇴치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차별의 정의를 불가피하게 사회전체를 내포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노인차별과 이들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이미지, 노인차별, 외모관리, 외모차별, 중복차별

## 참 고 문 헌

- 김경호. (2004). 이미지메이킹의 개념정립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옥.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옥.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297-1315.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와 노인문제. *사회과학*, 11(0), 51-68.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0), 310-339.
- 이유재, 공태식, 유재원. (2004). 서비스 조직과 고객의 교환관계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객 경험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6), 1809-1845.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임숙자, 최성주. (2000). 의복만족의 과정과 결정요인: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6), 928-939.
- 오미영. (2002). TV토론 출연자에 대한 이미지 평가 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5(1), 105-139.
- 한국여성민우회. (2003). <http://www.womenlink.or.kr>, 재인용: 임인숙(2004). 외모차별 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한국여성학*, 20(1), 95-122.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지. (2009). 네이버사전, 자료검색일 2009, 5. 9, 자료출처 <http://dic.naver.com>.
- Braithewhite V. (2002). *Reducing ageism,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Cambridge: MIT Press.
- Breda, J., & Schoenmaekers D. (2006). Age: A Dubious Criterion in Legislation. *Ageing & Society*, 26(4): 529-47.
- Browne, N., & Meyer, A. G. (2003). Many paths to justice: The glass ceiling, the looking glass, and strategies for getting to the other side. *Hofstra Labor & Employment Law Journal*, 21(1), 61-107.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Gerontologist*, 9(1), 243-246.
- Butler, R. N. (1995). *Ageism,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Butler, R. (2005). *Ageism, Encyclopedia of Ageism*. Binghamton, NY: Haworth Press, xv-xvi.
- Cash, T., & Pruzinsky, T. (1990). *Body image -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 Dennis H., & Thomas K. (2007). Ageism in the workplace. *Generations*, 31(1), 84-89.
- Gordon, R. A., & Arvey, R. D. (2004). Age bias in laboratory and field setting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3), 1-27.
- ILC :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2006). *Ageism in America: The Status Reports*. New York, NY: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 Jensen, E. M. (1991). *The Heroic Nature of Tax Lawyers*, 140 U. PA. L. REV. 367, 372 n.33
- Kasier, S. B. (1996).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Fairchild Books & Visuals 2 ed., New York, 145-157.
- Kite, M. E., & Stockdale, G. D. (2004).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An update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41-266
- Kotler, P. (1988). *Marketing management :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6th ed., New Jersey : Prentice-Hall.
- McGuire, S. L., Klein, D. A., & Chen, S. L. (2008). Ageism revisited : A study measuring ageism in East Tennessee, USA,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0(1), 11-16.
- Palmore, E. B.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 Palmore, E. B. (2001). The Ageism survey :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Peter, B., & Lars, T. (1999). Body images among men and women of different ages. *Ageing and Society*, 19(5), 629-644.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 18(3), 152-162.
- Rupp, D. E., Vodanovich, S. J., & Credé, M. (2006). Age Bias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Ageism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6), 1337-1364.
- Safire, W. (2000). *Lookism: Uglies of the World, Unite!*. N.Y. Times Magazine.
- Todd, D. L.,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2), 249-260.
- Victor, W. M. (2007). Advancing the sociology of ageism. *Social Forces, 86*(1), 257-264.

접 수 일 : 2009. 07. 21.  
수정완료일 : 2009. 10. 12.  
게재확정일 : 2009. 12. 06.